

2016 년 7 월 10 일(주일) 말씀과 묵상(3) “삶의 지평 넘어서기”(시 73:10-25)

<도입>

나는 살아가면서 생각이 달라져야 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의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 홀로코스트 집행 책임자 아이히만은 특별히 악하지도 않았고, 이상 성격자도, 반 유대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명령(시스템) 아래에서 수행했으며 자신의 악행에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체제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사유의 결핍, 단순한 광대짓에서입니다. 아이히만이 저지른 것에는 못 미칠지라도 일상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다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 시스템이니까 맹종하는 것, 성공, 외모, 돈에 대한 생각이 거의 그러합니다. 패션과 트렌드에 따르지 않으면 뒤쳐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본질적 복음의 생명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되어야 할 것은 **생각의 전환(도약)**입니다. 그 상황, 체제, 모두 그래왔으니까, 또 그럴거니까... 사고가 결핍이나 부동 상태에 머물면 삶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렇다고 고민이나 반대 생각들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경우의 수까지 끌어들이고 고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렌트의 지적을 생각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삶의 한계를 보고 넘어설 수 있을까를 살피겠습니다.

[1] 아삽의 고민

시편 저자 아삽은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이득을 부당하게 챙기는 악인들을 보고(11 절), ‘하나님은 어찌 이런 자들을 내버려두시는가? 라고 환멸을 느끼다가, 급기야 이들의 형통을 질투까지 했습니다(3 절).

13 절(표.새)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15 절**. ‘나도 그들과 같이 살아야지’라고 말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함께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쪽에는 있고 싶고, 현실을 보면 모두 악을 저지르니까 자신도 망발에 대한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은 매우 모순적이며 에너지 또한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지금 겪고 있는 상태에 제목을 부친다면 ‘사고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의 별 생각을 다 하지만 복음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은 아닙니다. 보니까 불합당하고, 모순되고, 질투나고, 나도 막해버려? 라는 혼동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16 절**, 이 얽힌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생각한 즉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괴롭기가 그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이 지점이 진정한 사유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오는 맞지 않고, 생소하게 느껴지고, 큰 괴롬을 당하는 상태에서야 사고의 회복과 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 아삽의 해결

급기야 아삽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7 절.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 성소 = 하나님의 임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시며,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말씀 묵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에’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2)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으로 확신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에 악인들은 망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확신은 아삽의 심한 고통을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뜻은, 자신이 비하되고, 상황은 불합리하고, 마음은 질투와 혼동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기 경험 속에 없던 새로운 상태, 즉, 업그레이드된 차원으로의 진입을 말합니다. 삶의 지평을 한 단계 넘어선 것입니다.

[3] 우리의 교훈.

우리는 쳇바퀴 도는 생각의 순환 속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배움은 있습니다. 경험적, 학문적, 감각적 지식을 증진시켜 갑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나를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기존의 나를 강화시키고 더 비대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와 맞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말과 반대하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 현실을 피해가고자 하는 노력이 엄청납니다. 빨리 잊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괴로움을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망이고, 도망의 목적지는 자기 동굴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싫은 느낌이 팽배하고, 자존심 상하고, 나의 치유 불능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그 상황을 직면/수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세계도, 그 누구의 세계도 아닌 나를 위해 예비해두신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 세계가 열리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활력을 더 느끼게 되고, 본질적으로 얻는 환희와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맺음>

이제는 자기를 더 강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변화와 성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의 전환과 도약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괴로움의 현실을 만나거든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된 말씀의 묵상 세계에서 삶의 지평을 넘어 정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의 인생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때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2. 지금 나의 삶을 볼 때, 통념대로 원하고, 따라하고, 그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스스로 지적해 봅시다. 왜 원하며, 왜 그리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지금의 나는 변화되어야 할 절박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